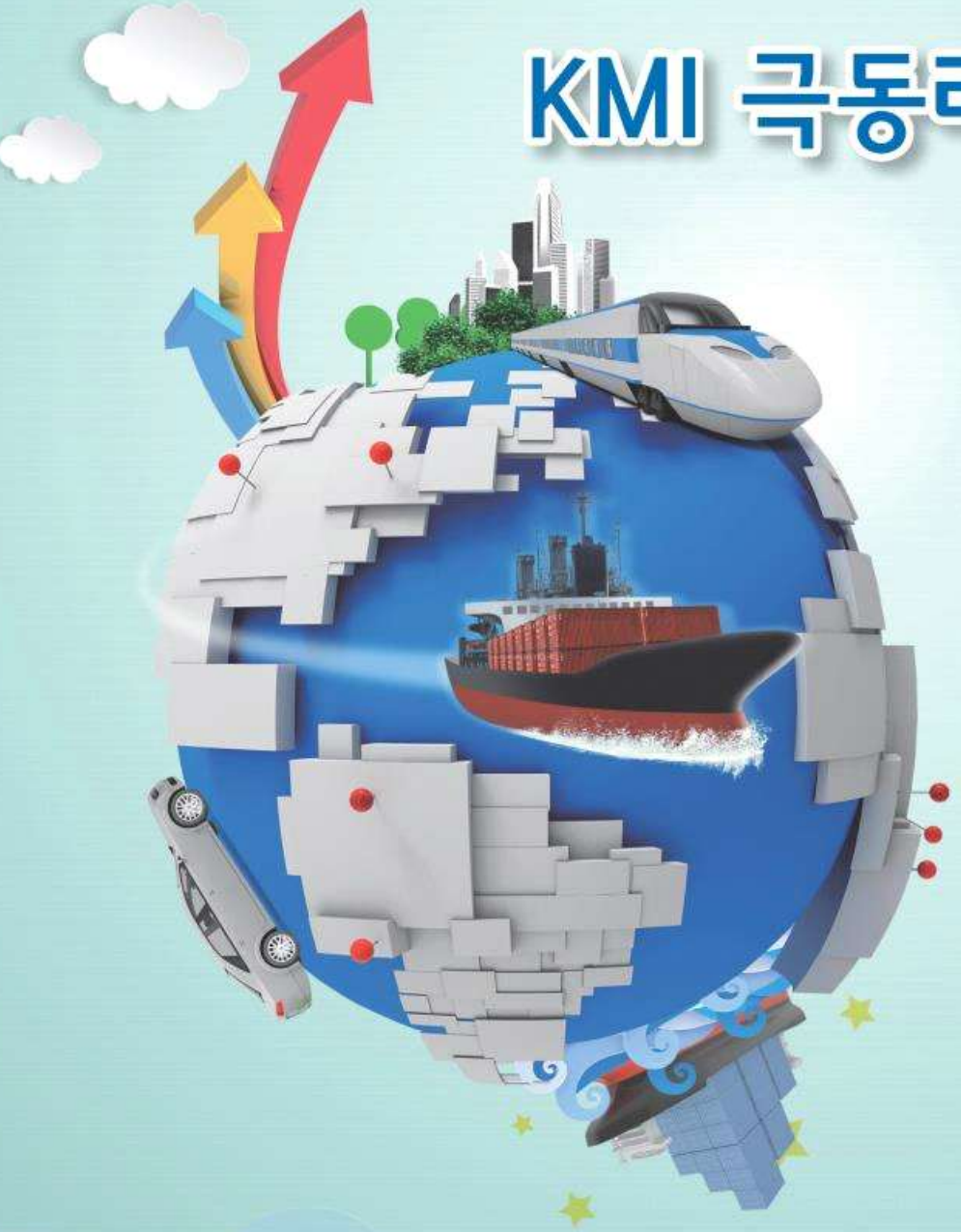
www.kmi.re.kr

제51호·2017년 12월 20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

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동향

극동 아무르주에 교통·물류단지 건설

ㅇ 유리 트루트네프(Yuri Trutnev)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표자는 베이징 회담에서 아무르주 교통·물류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함
- 이번 건설에는 중국 유에신(Юэсин)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 중임
- 건설될 교통·물류단지는 아무르주 블라고벤젠스크(Blagoveshchensk)와 중국 헤이허시를 연결하는 차량교량 및 국제통관소 '카니쿠르간(Kanikurgan' 부근에 위치할 예정임
- 또한 교통·물류단지의 주요 부지가 선도개발구역 '프리아무르스카야'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투자자들이 선도개발구역의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

ㅇ 본 건설 프로젝트에는 A등급의 창고 건설과 차량 통관 검문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
- 향후 차량 통관 검문소와 '블라고벤젠스크-헤이허'교량이 연결되어 국가간 차량 운송이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됨
- 중국 '유에신'사는 블라고벤젠스크 도시와 헤이어시의 지리적인 이점으로 양국가의 경제 상호작용 및 경제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함

ㅇ '블라고벤젠스크-헤이허' 차량 교량은 초대형 철근·콘크리트 구조물로 길이는 약 1km이며 2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임

자료 : http://logirus.ru/news/custom_and_ved/kitayskie_investory_-prikrutyat-_k_mostu_-blagoveshchensk-kheykhe-_dopolnitelnye_priyatnosti.html?sphrase_id=123156(검색일: 2017년 11월 16일)

김은미 리포터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극동지역 발전을 위해 연방예산 약 6,450억 루블 지원

ㅇ 러시아 연방은 23개 국가프로그램 극동섹션에 약 6,450억 루블의 연방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함

-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극동발전을 위해 국가프로그램마다 극동섹션을 구성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27개 국가프로그램 개정을 승인함
- 현재 극동개발부는 교육부, 문화부, 교통부 등 여러 기관과 협의 중이며 2018년 3월 1일까지 국가프로그램의 극동섹션 발전 계획을 완성하고자 함
- 극동개발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할당된 연방지원 예산은 추코트카주에 새로운 전력망 건설, 블라디보스토크 어린이 센터 '아케안' 확장, 마가단주 의료센터 건설 등 12개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합단지 및 극동지역에서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함

ㅇ 올해 9월 6일 국무총리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가정책 2단계 목표를 발표함

- 극동개발부 장관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극동지역의 보건 및 의료시설, 주택 및 공공시설, 교통 접근성 등의 질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국가정책 2단계 목표 달성을 위해 이와 같은 부문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
- 국가정책 2단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2025년까지 극동지역의 사회발전 지표를 러시아 평균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삼음

자료 : 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0515/(검색일: 2017년 11월 23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극동지역 채굴산업 발전을 위해 세법 개정

ㅇ 올해 11월에 개최된 러시아 연방 회의에서 로스티슬라프 골드쉬테인(Rostislav Goldstein) 유대인 자치주 대표는 극동지역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천연자원 사용과 새로운 조세제도가 필요하다고 함
- 이에 따라 새로운 조세법안을 제시함

ㅇ 또한 유대인 자치주 연맹협의회는 조세법안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임
- 극동지역은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 개발 잠재력이 높으나 자원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함
- 주석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러시아 산업에서 필요한 주석양의 약 10%만 자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90%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세금감면 등과 같은 새로운 조세제도를 통해 채굴산업을 지원하고 자원 개발 잠재력 및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면 지속적으로 추가투자 및 수입대체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

힌간스크 주석 매장지 개발

https://www.kommersant.ru/doc/3157167(검색일: 2017년 11월 26일)

ㅇ 본 회의에서 유대인 자치주 상원의원은 작년 말에 힌간스크 지역의 대규모 주석 매장지 개발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3억 루블이 투자되었다고 설명함

- 또한 주석 품도를 높이기 위해 선광처리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2018년 4~5월 사이 시험적으로 생산이 시작될 예정임
- 선광처리를 통해 얻어진 주석정광의 연간 생산량은 약 1,100톤으로 주석정광 품도는 50% 이상의 높은 품질을 유지함

ㅇ 러시아 연방 하원의원에서는 2022년까지 극동지역 전체 혹은 일부 지역에서의 광물 채굴에 대한 세율을 개정할 것[1]을 검토했으며 빠른 시일 내로 국가평의회에 제출될 예정임

- 이번 개정안은 극동지역의 채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수익성 및 추가 투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함

자료: 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0301/(검색일: 2017년 11월 16일)

김은미 리포터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1) 이번 세율에 대한 개정안은 제342조 제2항 세법과 연관됨, 제342조 제2항 세법 개정은 2015년부터 정부의 중요 정책 중 하나로 수입대체 프로젝트 금융지원 및 국가의 주석채굴 산업 지원 실행을 목적을 위해 제안됨

칸갈라스 연중 온실복합단지 확장

○ '칸갈라스(Kangalassy) 산업단지 선도개발구역'(이하 캉갈라스 산업단지) 입주기업인 '사유리(Сакури»)'사는 올해 연중 온실복합단지 프로젝트의 2단계 건설을 시작함

- '사유리'사는 본 프로젝트 2단계로 온실복합단지 면적을 약 10배로 확장하고자 함
- 현재 온실공간의 면적은 약 0.1ha이며 2단계 완공 후에는 약 1.2ha로 확장됨
- 또한 5개의 온실공간과 보일러실, 사무실, 서비스 지역 등 행정구역이 건설됨
- 본 프로젝트 2단계는 내년 가을 초 완공될 예정이며 첫 수확은 9월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함

○ 연중 온실복합단지 프로젝트는 기술 협력을 위해 일본 홋카이도 코퍼레이션(Hokkaido Corporation)사와 공동으로 진행됨

'사유리'사의 온실 작물 재배

자료: http://yakutia24.ru/ekonomika/45996-sayuri-rastet-rezident-tor-uvelichit-ploshchad-teplits-v-10-raz(검색일: 2017년 11월 26일)

ㅇ '사유리'사는 연중 온실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 및 생산하는데 성공함

- 본 회사는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약 9년으로 예상했으나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조세 감면 혜택으로 예상기간보다 빠르게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

ㅇ '칸갈라스 산업단지 선도개발구역'은 2015년 8월 21일 러시아 연방법[2]에 의해 지정됨

- 사하공화국과 야쿠치야시는 극동개발공사와 함께 캉갈라스 산업단지의 운송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등을 개발 중임
- 현재 캉갈라스 산업단지에는 10개의 기업이 약 20억 루블 상당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약 27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임

자료: 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0342/(검색일: 2017년 11월 16일)

김은미 리포터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2)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№877 от 21 августа 2015 года

금년 10월까지 러시아 항만 환적 처리물동량 약 9.3% 증가

○ 러시아 상업항 협회는 2017년 10월까지 러시아 항만에서 처리된 환적화물은 약 6억 4,95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9.3% 증가했다고 발표함

- 일반 환적화물은 전년대비 약 10.4% 증가한 약 3억 650만 톤이 처리되었으며 벌크 환적화물의 경우 전년대비 약 8.3% 증가한 약 3억 4,300만 톤이 처리됨
- 수출입화물은 각각 약 5억 60만 톤(6.9%), 약 2,960만 톤(14%) 처리됨[3)]

러시아 항만 물동량 1-10월

단위: 백만 톤, 전년대비 증가율

일반화물		벌크화물	
구분	환적 물동량	구분	환적 물동량
석탄	129.1(13.8%)	원유	210.7(12.6%)
컨테이너	39.7(13.0%)		
곡물	37.0(31.3%)	석유제품	116.8(1.2%)
비철금속	23.1(-2.3%)		
광물 및 비료	14.3(8.8%)	액화가스	11.8(7.2%)
콜드체인화물	2.5(2.5%)		

자료: http://portnews.ru/news/248720/(검색일: 2017년 11월 16일)

○ 극동러시아 항만의 경우 전년대비 약 4.4% 증가한 약 1억 6,07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함

- 화물별로는 일반 건화물 약 9,880만 톤(6.7%), 액체화물 약 6,190만 톤(1%)을 처리함
- 10개월간 극동러시아 항만별 처리 물동량 및 전년대비 증가율은 보스토치니항 약 5,770만 톤(1.4%), 바니노항 약 2,470만 톤(-0.9%), 나호드카항 약 2,020만 톤(3.8%), 프리고로드노예항 약 1,410만 톤(6.7%), 블라디보스토크항 약 1,400만 톤(18.7%), 포시예트항 약 640만 톤(-5.1%), 데카스트리항 약 920만 톤(-3.5%)[4)] 등임

자료: http://portnews.ru/news/248720/(검색일: 2017년 11월 16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3) 괄호 안 %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
4) 괄호 안 %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

일본, 극동 러시아 개발에 노하우(know-how) 제공

ㅇ 블라디보스토크를 세 번째 방문한 히로시게 세코(Hiroshige Seko) 일본 경제산업성장관은 극동 러시아의 항만과 철도 개발은 아시아 시장으로 지역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

- 그리고 항만과 철도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일본의 선진 기술을 극동 러시아 인프라 개발에 제공할 것이라고 협력 의사를 피력함

ㅇ 세코 장관은 "이번 방문의 주목적은 도시 인프라 조사로, 철도 관세가 여전히 비싼 것으로 보이며, 이에 일본의 노하우, 예를 들어 항만 관리와 철도 기술 측면에 일본의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"고 블라디보스토크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조함

- 또한, "철도역과 항만 시설을 직접 본 결과 많은 아시아 지역에 농업과 산업을 포함한 지역 제품을 더 수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깨달았다"고 말함
-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일본의 대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극동 러시아 발전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임
-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은 일본 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임무에 임하겠다고 밝힘
- 한편, 알렉산드르 갈루 쉬카(Aleksandr Galushka) 극동 러시아 아시아 개발 장관은 일본 투자가들이 극동 지역에 16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21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으며, 이 프로젝트에는 소위 선도개발구역(advanced development territories)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함 .
- 러시아 투자와 관련해 일본은 2년 전 도쿄에서 아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자금 조달을 위해 110억 달러를 조성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, 그 일부를 러시아 극동 지역에 투자 할 수 있다고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음

자료: https://www.rt.com/business/413610-japan-russia-far-east/(검색일: 2017년12월 20일 검색)

공영덕 연구원

051-797-4778, ydkong6053@kmi.re.kr